

목포 보현정사 무료급식소 운영

‘영산정각원 경로식당’ 개원



‘영산정각원 경로식당’을 개원한 목포 보현정사 주지 정각 스님이 1월 6일 개원식에 참석한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고지원 중단으로 폐쇄위기에 처한 노인복지회관이 사찰지원으로 되살아나 화제를 모으고 있다. 목포 보현정사(주지 정각)는 1월 6일 만호동 소재 행복노인복지회관에서 ‘영산정각원 경로식당’ 개원식을 갖고 무료급식에 들어갔다. 경로식당 개원에는 보현정사 정각 스님과 전태홍 목포시장, 황정호 도의원, 김성진 시의원을 비롯한 기관장, 자

탁반은 영산정각원 경로식당은 개신교 여성수도공동체인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가 6년간 운영하던 행복노인복지회관으로, 금년부터 국고보조가 줄어들어 폐쇄위기에 처했던 것을 보현정사가 경로식당으로 전환해 무료급식을 이어가게 됐다. 영산정각원 경로식당은 목포역, 목포항, 선창지역 부근의 독거노인과 노숙자 150여명에 대해 매일 점심을 제공하며

신도회 중심 자원봉사 팀 조직

역·항구 주변 독거노인에 점심

자원봉사자, 지역 노인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무료급식에 앞서 정각 스님은 인사말에서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로부터 최고의 대접을 받고는 싶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전태홍 목포시장은 “금년부터 규모 미달로 부득이 복지회관 기능이 정지되어 무료급식 중단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으나 보현정사 정각 스님이 선포한 뜻을 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엔 보현정사가 목포시로부터 위

이를 위해 보현정사는 신도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팀을 조직했다. 6년째 복지관에서 점심을 이용하고 있는 김인배(76)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점심 한끼로 하루를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아마져 없어질까 걱정했다”며 “스님 도움으로 계속 식당이 열리니 말할수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영산정각원 경로식당은 지상 2층 연건평 100평 규모로, 주방과 식당 외에 도 물리치료실, 상담실, 컴퓨터실을 갖췄다. 글·사진/목포=이준엽 기자

“힘 모아 지역발전 앞장서자”

광주 운불련·포교사단 자매결연

새해들어 광주지역 최대규모와 조직을 자랑하는 신행단체 운불련과 포교사단이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한국운전기사 불자연합회 광주지역회(회장 유영식·이하 운불련)는 1월 5일 광주 우산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 앞서 광주 전남 포교사단(단장 김인식 이하 포교사단)으로부터 자매결연 패를 전달받았다. 이날 운불련 유영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운불련 창립 13주년을 맞아 보현행원회를 실천 하는데 박차를 기하고자 포교사단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며 “두 단체가 상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형태의 포교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포교사단 김인식 단장은 “작은힘이 합치면 큰 힘이 되듯 운불련과 포교사단이 함께 해 지역불교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운불련은 150여명의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정기적으로 우산종합복지관 장애인들과 사찰나들이 행사를 주관하며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포교사단은 300여명의 포교사들이 17개팀으로 나눠서 사찰안내, 교도소·군부대 포교 등 각종 직능단체별로 포교에 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 최대규모의 신행단체간 자매결연으로 조직력과 기능성을 갖춘 포교 활동이 기대된다. 이준엽 기자



“친구들이! 맛있는 김치 먹고 힘내!”

선양사회복지원(이사장 김수현) 주관으로 부산시내 18개 고교 학생 368명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600여명이 지난 12월 29일 김장김치를 담가 소년소녀가장에 전달했다. 또래 친구들에게 전달할 김장을 담그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천미희 기자

“초심으로 목표 향해 정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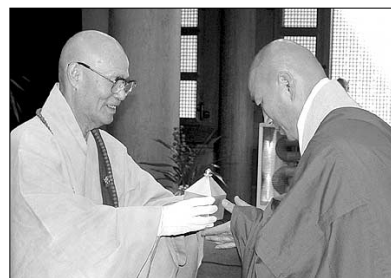
범어사·광주동구불교협의회 신년하례

부산 범어사와 광주동구불교협의회가 을유년 새해를 시작하는 하례식을 각각 열고 지역발전을 다짐했다.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부산 범어사(주지 대상)와 범어사 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부산발전과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육법공양, 지호경 범어사 신도회 부회장의 발원문에 이어 승가와 재가가 마추 보고 신년하례로 2005년 한해의 정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어사 주지 대상 스님은 “처음 결심한 마음을 그대로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무지 못할 일이 없으니 첫 마음, 첫 결심, 첫 목표들을 향해 쉽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도) 1월 4일 광주 세심정사에서 ‘새해하례 및 통일외교법회’를 봉행했다. 참석자들은 일체제불교역대조사전에 세일삼배를 올리고 지암(세심정사 회주, 혜우(혜통사 주지), 송정(송암사 스님 등 원로스님들에게 세일삼배를 했다. 통일(誦)은 부처님이래 역대 조사와 사부대중이 새해인사를 하는 의식으로, 광주 지역에서 통일법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엽·천미희 기자

“전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 진산식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지난 12월 27일 단막전에서 10대 주지 정강성웅 스님(사진 오른쪽) 진산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해 직지사 회주 녹원, 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도원, 중앙종회의장 법등, 교육원장 정화,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8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성웅 스님은 “회주스님의 가르침과

대중의 뜻을 받들어 선원과 강원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외호하고 가람순수와 문화재보호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불교회관을 건립하여 포교와 전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진산식에서는 화환을 받지 않았으며, 들어온 축화성금은 모두 공익사업과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진다. 배지선 기자

98년 근대역사 한눈에

‘금정중학교 역사관’ 개관

98년의 역사를 지닌 중립학교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최주석)에 학교 역사와 3·1 운동, 조선어학회 활동사건 등을 정리한 역사관이 개관했다. 지난 12월 22일 학교법인 이사장 대상 스님, 동래교육청 주기민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한 금정중학교 역사관은 분관 중앙 현관 20평에 마련된 공간에 125종의 사진 및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외국인 노동자 4백여명 한자리



“2005년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어 발음이 분명치 않은 네팔 노동자가 새해 인사를 건네자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퍼져 나왔다. 곧 이어 네팔 음악이 울려 퍼지자 네팔에서 온 노동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흥겹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부산 상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이주노동자 공동 송년의 밤

행사에는 부산 경남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4백여 명이 참석해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사진). 이날 행사는 2002년 아시안 게임 당시 방글라데시 서포터즈 활동으로 인연을 맺은 부산보현의 집(원장 이기표)이 주최해 의미를 더했다.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 각 나라별로 다양한 무대 공연이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는 흥겨운 뒤에 이주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이 묻어나기도 했다. 최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 강제 추방되거나 숨어 지내는 이들이 많아진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도 많았다. 그러나 공연이 시작되면서 이들의 표정은 어느새 맑고 순수하게 빛났다. 함께 참석한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며 그동안의 시름을 날려버렸다. 천미희 기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위탁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2월 27일 서울시로부터 현재 영등포 보현의집 주차장 위치에 건립될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운영기관 자격을 얻었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관을 서울시가 미리 내정한 까닭에 대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윤남선 과장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건물 배치, 실제로 구비할 프로그램실 건설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건평 1200평 규모에 지상 3층, 지하 2층 건물로 시공된다. 이는 단일복지관으로는 불교계 최대규모이며 빠르면 2006년 10월까지 완공, 2007년 개관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익명 독지가 1억원 기부

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에

익명의 한 독지가가 사회복지봉사 시민모임인 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에 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맑고향기롭게 대구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경 익명의 독지가가 찾아와 “서울 김상사처럼 넓은 마당이 있는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불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액순 기부금에 1억원을 기탁했다는 것. 이 독지가는 언론에 절대 알려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한·국·불·교·태·고·종·과·함·께·하·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 (4학기) / 연구과정 (2학기) 신입생 모집 (추가)
2005.1.10~1.31

◆ 개설학과

학과	세부전공	모집인원
문헌사학과 (文獻史學科)	서법예술전공 동방화화전공	00명
불교문예학과 (佛敎文藝學科)	불교음악전공 불교미술전공	
민속문화학과 (民俗文化學科)	역경예측전공 풍수환경전공 민속연희전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지원자격
- 석사과정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2)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연구과정 : 일반 성인 남·여 / 학력·연령 제한 없음

문화교육원 전문과정 신입생 모집

과정	교육과정	세부과정	담당교수
불교 문화예	불교음악 실기	사찰기초의식	김 구 해
		법패실기 (홀소리)	심 상 현
		불교무용 (나비춤)	김 법 현
	불교미술 실기	불교조각	이 상 배
		불화기초실기	원 미 희
		불교한문강독	심 재 동
역경 명리	불교경전 강의	대승경전 연구	주 명 철
		불교기초교리	심 상 현
		주역 연구	신 성 수
	역경학 강의	역경학 강의	김 용 연
		복서역학 연구	박 영 창
		사주 초급	박 영 창
명리 명역	명리학 강의	사주 연구	박 영 창
		명리학 초급	김 동 현
		명리학 연구	김 동 현
	기문둔갑학 강의	기문둔갑 연구	이 승 전
		육임	호 사
		정성술 강의	정동정성술
민속 문화	민속연희 실기	민속극·음악·무용	이 정 성
		무속·제의·민속	박 상 만
		가요 실기	가요 연구
자연치유학 강의	자연치유학 강의	대체의학 연구	이 승 덕
		한방과 사주학	한 승 철
		비전환방문 연구	윤 영 배
		실전치유기공	최 원 석

공개강좌 특별과정 모집

<공통> ◆ 모집기간 : 2005.01.10 부터 선착순 마감
◆ 수강대상 : 일반 성인 남·여 / 학력·연령 제한 없음
◆ 특 전 : 총장명의로의 수료증 수여
◆ 개 강 : 3월 첫주

주택풍수감정사 / 천명사주감정사

교재 최초공개! 저자직강! 민속문화학과 노병환 박사

◆ 모집정원 : 각 과정별 30명
◆ 수 강 료 : 각 과정 당 100만원 (2과정 동시 수강 시 25만원 할인) * 교재 별도 구입
◆ 교육기간 : 18주
◆ 특 전 : 대학교자격증 수여운영규정에 의한 총장명의로의 자격증 수여
◆ 교 재 : 음양오행사유체계론, 거림천명사주학, 거림기택풍수학

시간	기초 5주 (03.12~04.09)	실전 13주 (04.11~07.09)
과정	과목명 강의시간	과목명 강의시간
주택풍수	음양오행학 (토) 14:00~18:00	주택풍수학 (토) 14:00~17:00
	천명사주 (토) 14:00~18:00	천명사주학 (금) 19:00~22:00

민화전체 실기

명실상부한 전문인 양성! 서공임 교수

◆ 모집정원 : 20명
◆ 수 강 료 : 100만원
◆ 교육기간 : 16주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오후 16:00 (6시간)

침구·교정 과정

중국 현지 침술 연수! 이명희 교수

◆ 모집정원 : 40명
◆ 수 강 료 : 60만원
◆ 교육기간 : 16주(2년 과정)
◆ 특 전 : 년 1회, 중국 현지 침술 연수 30일(연수비 별도)

새로운 동방문화 예술의 길잡이 **東方大學院大學校**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dongbang.ac.kr 136-8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Tel. 02-745-2141